

경제

전임 집행부 부적정 회계로 수익원 집행 기아차 노조 환수 소송 검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부적정한 회계로 수익원을 집행한 전임 노조 집행부에게 환수를 최종 통보한 데 이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수익원을 집행한 19대, 21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환수소추에 나섰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진전이 없었기에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 22대 노조 집행부는 지난 6월 전임 집행부의 부적정 회계집행 사실을 폭로하고 회계규정 위반 관련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해왔다.

노조는 소식지인 합성소식을 통해 지난달 26일 관련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9월 말까지 환수조치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대, 21대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결정대로 법적 소송을 통해 환수하고, 환수금액은 조합원에 돌려 주겠다고 알렸다. 환수금액은 19대 3억3600만원, 21대 1억4900만원 등 총 4억8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부정과 부리에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한 것처럼 환수조치 통보에 이행하지 않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금액을 회수해 조합원

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지난 6월 19~21대 노조의 집행내역을 의무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감사한 결과,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된 규모가 수백건, 수익원에 달한 다며 회계규정 위반 관련자에 대해 변상과 함께 지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절 회계는 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넘거나 정상이보다 현저히 할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등 회계규정 위반 혐의나 단순 착오에 의한 부적절한 집행 등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내외 첨단 광산업 기술 한자리에

국제 Light 비전 엑스포
오늘 광주 DJ센터서 개막

10개국 200개업체 참여

국내외 광(光)산업 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2 국제 Light비전 엑스포"가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된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10여개국 광산업 관련 200개 업체가 참여해 481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정기적

으로 개최해 온 국제광산업전시회를 비롯해 광기술컨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차세대 LED/O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 세미나와 LED광원 및 응용 기술 세미나 등이 열리며, 한국광산업진흥회·한국무역협회 등이 초청한 23개국 300여 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하는 수출상담회도 개최된다. LED테마·주제관은 도로·터널·교량·황단보도·골목·주거공간·미

술관·박물관·학교교실·LED마켓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LED 가로등을 포함해 총 424개 품목의 LED제품이 공간별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광산업 신기술 및 우수제품 개발 6개 업체와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고 '빛과 희망나는 프로젝트 MOU 체결식'도 마련된다. 또 대·중소기업 회원사가 참여하는 상생협력간담회를 열어 회원사 간 공동마케팅 협력 방안과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조규중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2012 국제 Light비전엑스포는 국내 최대 광 전문 산업전시회로 해외 광산업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광산업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미래 친환경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광산업 분야의 새로운 불우오션으로 떠오른 LED분야에 대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수요까지 시장 확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자체-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적공방 2R

광주지역 3社 개정조례 영업제한 취소 소송

의무휴업 시행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법적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8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홈플러스(주) 대형마트 3사가 광주시 5개구청을 상대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개정된 조례가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 고려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즉 개정된 조례가 지역상권과 입지 조건에 따라 각 대형마트별로 영업시

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의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백지위임해 구청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의무휴업 횟수와 일자,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법정 최고한도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구 고문번호

전국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처를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1차 변론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13곳과 SSM 17곳은 자치구의 조례제정으로 지난 4월부터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4월 12일 대형마트 3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신청을 했고 7월16일 광주지법의 인용결정으로 영업제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개정된 조례가 다시 시행되면서 지난 7일부터 의무휴업을 재시행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핑크리본 마라톤 참여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 임직원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핑크색 셔츠를 입고 뛰며 건강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금호타이어 제공)

돼지고기값 급락 완화 3만여마리 구매 비축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광주일보 10월8일자 1면)을 거듭하자 정부가 돼지고기 최대 3만6000마리 물량을 3개월 동안 비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8개월 동안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이 kg당 3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하루 2000마리 물량의 돼지고기를 구매해 비축하기로 했다. 비축한 물량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능력 어미돼지 8만마리 도축 ▲돼지고기 뒷다리살 2만t 비축 ▲국내산 육가공원료육 사용비중 확대 ▲돼지 조기출하 등 기존 대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kg당 5800원대였던 돼지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탕박 기준)은 현재 3100원대까지 급락해 축산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날 현재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kg당 2796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가파른 상승

경기침체 영향 미소금융 5.5% 햇살론 8.4%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위원회가 8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 5.5%, 햇살론 8.4%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이듬해 3분기만 해도 연체율이 0.0%였으나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다.

2010년 7월 내놓은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에 대위변제율(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이 0.2%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 6.8%로 치솟았다.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폐업 상태다. 햇살론 대출자의 휴·폐업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상승한 데는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의

문제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뉴라이트 계열 민간 복지사업자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금 35여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미소금융 재원인 휴면예금을 민간 복지사업자가 지원받아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간복지사업자는 무이자 지원받아 최고 연 8% 금리로 대출해 33여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연남수

코스피지수	1,981.89 (-13.28)
코스닥지수	537.79 (+1.97)
금리 (국고채 3년)	2.76% (+0.01)
원·달러 환율	1,112.00원 (+0.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국내 車산업 10년새 고용 28만명 증가

총 고용인원 증가율보다 8.2%P 높아

최근 10년새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인원이 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최근 고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2010년 현재 175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고용인원인 2383만명 가운데 7.3%로 집계

됐다. 고용인원이 147만4000명(총고용의 6.8%)이었던 2001년과 비교해 10년만에 18.7%(27만6000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10.5% 성장하는 데 그친 총 고용인원 증가율보다 8.2%포인트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전시 인구 150만명(작년 기

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국내 인구 5000만명을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7가구당 1가구는 자동차 관련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품업체의 고용은 36.8% 급증했고, 완성차업체의 증가율은 15.5%로 나타났다.

이는 완성차 업체들의 비약적 발전이 부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많이 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자동차산업은 2011년 58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8월 41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국내개발 | 국내생산 | 특허 제 10-1171252호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 TV 시청할 때
- 노인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강의들을 때
- 핸드폰 통화할 때
- 대학 · 상담할 때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10. 20(토) ·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청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종을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쳐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청사

무등산 문민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